

투데이 칼럼

북한 김정은의 출생

김정은의 출생은 상당 부분 비밀에 싸여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생모 고영희 사이에서 1984년 태어났다는 정도만 확인됐다. 고영희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무용수다. 제주 출신인 그녀는 아버지 고영택을 따라 일제시대 오사카로 건너갔고, 1960년대 북송선을 탔다.

영화배우 출신 성혜림과 동거하던 김정일이 어떻게 고영희와 인연을 맺었는지도 베일 속에 있다. 북송선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원산으로 고영희가 한때 '원산씨'으로 불렸다.

실제로 김정은은 원산 인근에 마시령 스키장을 짓는 등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였다. 친형 정철, 여동생 여정과 함께 원산의 전용 별장에 자주 들르는 게 원산씨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란 관측이다.

백두혈통은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가족을 일컫는 말이다. 김일성이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부인 김정숙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였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이들 가족을 신격화하기 위해 사용했다.

김정일 이후 집권한 김정은 역시 후계 체제의 정통성 명분을 백두혈통에서 찾고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성장 과정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출생



정 부 구 통일 교육원

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진이나 기록 영상도 없다. 김정은은 10대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당시 북한에는 대규모 집단 아사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김정은의 서방 유학을 크게 자랑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고영희의 부친이 일본 군수 공장에서 간부로 일한 경력 등이 조종련 등의 입을 통해 북한 내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했다. 백두산 출생설을 만들어 이른바 '백두혈통' 신화를 조작한 아버지 김정일과는 크게 다르다.

김정일의 유년기 사진과 김일성대 학 시기의 군사훈련 영상, 1964년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김일성을 따라다니던 모습 등은 북한 관영 TV를 통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뇌졸중으로

몇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김정일 체제에 이목이 집중됐고, 3대 세습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철·여정과 함께 정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다.

그러나 유학생활 중 김정은은 두각을 나타내거나 우수한 자질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김정은은 컴퓨터 게임과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액션영화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경쟁에서 지는 걸 무척 싫어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미국은 김정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유학 당시 김정은의 친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파대망상증을 보이는 인물로 결론 내렸다.

김정일이 막내들이나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한 건 예상 밖이었다. 장자 계승 원칙을 따를 것인만큼 권력이

우세했다. 하지만 성혜림과의 사이에 태어난 장남 김정남은 일찌감치 눈 밖에 났다.

차남 김정철의 경우 흐르르게 질함으로 문제가 생겨 낙마했다. 결국 김정일은 사망 1년여 전인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를 통해 26세의 막내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김정은이 후계 권력을 따낸 게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선대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기갈과 외모를 닮은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농구경기를 할 경우 정철은 종료 후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 반면 김정은은 반드시 '총화' 즉 결산모임을 했다.

잘할 뜻을 따지고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독촉이 쏟아졌다. 이런 모습에 김정일은 "정철이는 너무 착해서 못쓴다. 나를 가장 빼앗은 건 정은"이라고 말했다. 후계자 김정은은 권력 유지에 병축함을 보였다. 후계 경쟁자였던 김정남을 독살하여 후환을 없앴다.

김정은 체제 유교 시 중국 지도부가 '백두혈통'의 장남인 김정남을 응립할 것인 서방 언론의 관측이 김정은을 자극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인으로 낙점해 준 고교부 장성택을 무참히 살해한 것도 권력 장악을 위한 본보기식 숙청이다.

사설

전라감영 복원에 가는 기대

전라감영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8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한 최고 통치기관이었다. 전라감영의 복원 의미와 복원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지역을 다스린 관청이다. 전라도(전주를 비롯 충청도(충주), 경상도(대구), 함경도(영주), 경기도(서울), 황해도(해주), 강원도(원주), 평안도(평양) 등 조선 말도 지역을 대표하는 곳에 감영이 있었다.

전라감영의 옛 모습이 최초로 국민에게 선을 보이게 된 건 '고종 덕분'이다. 오래된 그림첩서와 지도 그리고 구한말 미국 공사대리가 찍은 사진을 통해 전라감영의 역사가 열렸다. 열서 속 사진에는 큰 기와가 양쪽으로 날개처럼 펼쳐져 위엄을 갖춘 모습이 담겼다.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기도 하다. 전라감영은 가장 먼저 문을 들어서면 새로 복원된 선화당과 관공각이 나란히 서 있다. 핵심 건물인 선화당은 옛 전라 관찰사가 근무를 하

던 곳이다. 상량문은 복원된 선화당의 가치와 복원 경위, 의미 등을 담아 산만 이용 선생이 썼다. 복원된 선화당은 최첨단 기술인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집무실에 들어서면 과거 전라 감사의 역할이 영상으로 건물 내부에 비추진다. 관공각에는 AR(가상현실)이 접목된다. 망원경에 눈을 대면 과거 민정을 살피는 감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현재 전라감영 터의 동편부지 내 선화당을 비롯한 7개 건물만 복원이 완료된 상태다.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 민정과 풍속을 살피는 관공각, 휴식공간인 연신당, 감사 가족의 거처인 내아와 내아행당 등 감영 공간에서 핵심 영역을 우선 복원했다.

전라감영 복원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 가지로 침체된 전북의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북 룩 찾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라감영 복원으로 역사 유적지를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때이다.

화장실 조차 없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전북 완주군 관내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찾은 탐방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편의시설이 극히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화장실과 쉼터 그리고 휴게시설 등이 없기 때문이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구이 호반을 따라 8.8km에 걸쳐 아산과 능선, 제방과 언덕, 숲과 데크 코스 등으로 연결돼 있다. 이곳은 통상 출발지가 구이면사무소 부근과 슬레미박물관 두 군데인 순환형 코스로 되어 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트레킹 및 산책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탐방객의 발길이 끊을 잊고 있다. 그러나 구이면사무소 출발지의 경우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다. 화장실 문제는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 문제다. 평일에는 구이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에는 면사무소가 문을 닫으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 개방 화장실조차 단 한 곳이 없는 것이다. 결국 탐방객들은 화장실을 찾아 나서면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구이면 소재지에 있는 인근 음식점이나 마트의 화장실을 찾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급한 경우에는 플래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망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슬레미박물관 출발지의 경우에는 야외 화장실이 있다.

그러나 둘레길 코스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 안내판마저도 없다. 편의시설은 화장실 뿐 아니다. 중간 중간 쉬 수 있는 쉼터 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탐방객들은 맨바닥이나 풀밭에 주저앉아 쉬어야 한다.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다. 주로 구이농협 주차장이나 제방길 빈 공간에 주차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차 몇 곳이 거의 없다. 모악산 건너편에 있는 슬레미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많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이곳도 민원이다.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경관교량 설치도 안 돼 한 바퀴 완주하지 않으면 중간에 장거리를 되돌아와야 한다. 슬레미박물관에서 망산마을로 가는 중간 지점과 저수지 제방 쪽으로 가는 아산 길은 비만 오면 흙탕 길로 변하기도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교문

작년 연말 코로나 3차 유행을 막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가 유지되었다.

세계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전염병과의 싸움은 계속 이어져왔다. 거슬러보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해 인구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고, 15~16세기 멕시코와 쿠바에서는 천연두와 흑역이 퍼져서 1800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2000년에 들어서도 에볼라·신종플루·사스·메르스 등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평상시에는 일상적이었던 모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여가생활이 전염병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우선 일시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공동체 전체에 생겨난다. 또한 경제적으로 쇠퇴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것만 보아도 전염병이 경제를 쇠퇴하게 만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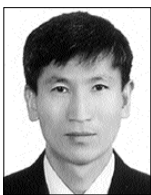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줘 전염병은 인류의 공공의 적이다.

하지만, 전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시한번 일깨워 주기도 한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준다. 전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존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성경은 사람을 짐그릇에 비유하고 있다. 흙으로 만든 짐그릇은 잘 깨지고 부서진다. 사람은 짐그릇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짐그릇 같은 존재임을 가르쳐 주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훈련해 주는 교보제인 것이다.

둘째, 서로의 존재가 끈끈하게 연결



권 경 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돼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무의 뿌리가 병들면 뿌리만 죽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병들면 이파리도 시들어 죽게 된다. 사람은 각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족 중에 누군가 병들고 아프게 되면 집안 전체가 근심에 싸인다. 한 사람의 불행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염병은 사람이 서로에게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며, 우리의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

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러준다. 이웃의 슬픔이나 불행에 눈감는 우리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 존재인 것을 알려준다.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사람은 늘 도전해 왔다.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인류사가 발전해 왔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많은 전문가가 1년 안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됐다.

인류! 그 가운데 한국인의 지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한 대응력을 발휘하며 이겨내고 있다. 전염병뿐 아니라 각종 대형 재난에서도 반드시 이겨냈으며, 지금의 코로나19를 딛고 재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희망을 잃지 말자.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19도 정복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021년 한 해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